

# “한국 먹여살릴 ‘新성장동력’을 찾아라!”

- 5~10년 후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 신성장동력을 발굴하라!
- 지식경제부와 신성장동력기획단(이하 기획단)은 지난 21일부터 오는 8월 20일까지 한 달 간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신성장동력 정책제안 대회인 「신성장동력을 찾아라!」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 기획단은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보다 나은 미래를 창출하기 위해 63개의 신성장동력 후보군을 발굴한 바 있다.
- 행사에 참여하기 원하는 대학생/대학원생들은 63개 후보군 가운데 1개 이상을 선택, 기획단 홈페이지 (<http://nge.itfind.or.kr>)에 해당 과제의 국내현황, 해외사례, 기술개발 및 산업화 단계에서의 문제점,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책 제언 등의 내용을 문서로 작성, 응모하면 된다.
- 선정된 우수 제안자에 대해서는 태블릿 노트북, PMP, MP3 플레이어 등 각종 상품을 증정하고, 최우수 제안자 4명에게는 지식경제부장관상을 수여한다.
- 최종 결과는 오는 9월 발표되며, 자세한 내용은 신성장동력기획단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온라인 신성장동력 정책제안 대회 개최 계획

### 1. 행사개요

- 추진목적 : 신성장동력 발굴에 대한 온라인 홍보 및 정책제언 수렴

- 행사기간 : '08. 7.21(월) ~ 8.20(수)
- 참가자격 : 대학생, 대학원생
- 참가방법
  - 신성장동력 63개 후보군에서 자율적으로 1개 과제를 선정하여 해당과제의 국내현황, 해외사례, 기술개발 및 산업화 단계에서의 문제점,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책 제언
  - 유사한 과제의 경우 다수를 동시에 선정하여 종합적인 분석·제안 가능
  - ※ 신성장동력기획단 홈페이지(<http://nge.itfind.or.kr>)를 통해 공고, 접수 및 발표

### 2. 평가 및 선정

- 접수된 제안에 대한 2단계 평가를 통해 우수제안 및 최우수제안 선정

단 계	평가방법	평가자	선 정
1차 평가 (분과평가)	서면 평가	기획단 각 분과위원회	분과별 우수제안 각 3편 및 최우수제안 각 1편 선정
2차 평가 (총괄평가)	발표(서면) 평가	신성장동력 기획단	전체 최우수제안 선정

※ 4개 분과 : 주력기간산업, 에너지·환경산업, 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 전체 최우수제안에 대해 장관상을 시상하고 기념품 증정

구 분	선정수	기념품	비 고
전체 최우수제안 (장관상 수여)	1	노트북	200만원 상당
분과 최우수제안 (장관상 수여)	3	PMP	50만원 상당
우수제안	12	MP3	15만원 상당

※ 선정되지 않은 참가제안에 대해서도 예산범위내에서 기념품을 증정하고, 공동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대표자 1인에게만 상장 및 기념품 증정

## 웹기반 SW서비스 보급 · 확산 추진

- 지식경제부는 SW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용 SW에 웹 기반 SaaS 기술을 적용하여 시범 서비스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힘

\* SW서비스(Software as a Service, SaaS) : SW를 자체 구축할 필요없이 인터넷을 통해 사용하고 사용량에 따라 지불하는 SW

- SW서비스는 SW기업과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여 중소기업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자체로도 성장 유망한 SW

• 국내는 웹기반 SaaS 기술 활용 선진국 대비 저조, 기업용 SaaS 부족, SaaS 전문 서비스 기업 부재로 활성화 저조

- 이에 따라 지경부는 올해 기업용 SW에 웹 기반 SaaS 기술을 적용하여 다수 기관에 통합 서비스하는 것으로 사업 방향을 정립

• 이를 위해 국내기업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된 70개 기업용 SW를 시장성, 국책성, 정부지원 효과성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육상 운송정보관리 서비스, 영상회의·공동저작 서비스, 지식공유 및 관리 서비스, 선박용품 공급관리 서비스 등 4개 과제를 최종 선정

• 선정 과제에는 웹 기반 SaaS 기술을 적용하여 기능 개선 등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 올해 12월부터 172개 기관에 서비스할 계획

- 지경부는 종래 중소기업 ASP 사업 등 활용촉진 정책으로 SW서비스가 대중화 되었다면 이제 웹기반

SaaS로 고도화, SaaS전문기업 육성 등 SW서비스 산업화 정책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힘

### 참고1 > 웹기반 SW서비스 보급 · 확산 사업 개요

#### 1. 웹기반 SW서비스(SaaS) 개요

- SW를 자체 구축할 필요없이 인터넷을 통해 SW를 사용하고 그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지불하는 SW서비스

\* 광의의 SaaS : 스트리밍 방식 + 웹기반 방식 (ASP 포함)

- SW 기업은 소비자와 직접 거래가 가능하고 중소기업 등은 저렴하게 SW를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자체로도 유망한 서비스 산업

#### 2. 추진현황 및 문제점

- (추진현황) 스트리밍 방식의 SaaS 기술 개발 (ETRI, '06), 개인용 SW 시범사업 추진('07), 중소기업 ASP 활용사업 추진('05~'07)

- (문제점) ASP보다 발전된 웹기반 SaaS 기술 활용이 저조하고,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업용 SW의 SaaS 부족

#### 3. 금년도 추진방향

- 파급효과가 큰 기업용 SW 대상으로 웹 기반 SaaS

시범사업 추진

- 중소기업 대상의 수요조사로 발굴된 70개 후보과제를 시장성, 파급효과 등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4개 지원과제 최종 선정

\* 4개 지원과제 : 육상운송 정보관리 서비스, 영상회의·공동저작 서비스, 지식공유·관리 서비스, 선박용품 공급망 관리 서비스

- 웹 기반 SaaS 기술 적용이 가능토록 기능 추가·개선 등 업그레이드를 지원하고, 172개 기관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 추진

4. 향후 추진일정

- 통합 서비스 기업 선정(8.29)
- 업그레이드 추진(7.21~11.28)
- 시범 서비스 개시(12.1)

**< 참고2 > 지원과제 개요 (기존 SW와 비교)**

1. 육상 운송정보 관리 서비스(e-Logistics)

- (기존) 종래 e-Logistics 서비스는 SW 미설치 PC에서 이용 불가, 화물-차량 자동매칭, 모바일 알림기능 부재로 활성화 미흡
- (향후) 종래 서비스를 웹 접속 방식으로 개선하고, 모바일 알림 기능 및 화물-차량 자동 매칭기능을 보장하여 이용 활성화

2. 지식공유·관리 서비스(Knowledge Management System)

- (기존) 종래 KMS는 메일 등 타 시스템과 연계 미흡,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웹 문서(HTML) 등록 제약으로 이용 저조
- (향후) 웹 방식 전환으로 내부 관리 시스템과 연계, 이동성 강화, 웹 문서 등록 서비스 실시로 KMS 서비스 이용 활성화

3. 선박용품 공급관리 서비스(Supply Chain Management)

- (기존) 종래 SCM은 해운선사별 거래양식 상이, 수·발주 기능과 세관신고 서비스 분리로 업무 중복수행 등 비효율 초래
- (향후) 거래양식 표준화, 수·발주 서비스와 세관신고 서비스의 통합처리 기능 개발로 웹스탑 SCM 서비스 구현

4. 영상회의 및 공동저작 서비스(e-Conferencing)

- (기존) 종래 영상회의 서비스는 유·무선 전화 음성회의, 모바일 영상회의, 공동 문서저작 기능 미흡으로 이용 저조
- (향후) IP Telephony, 폴브라우징, 웹오피스 등 웹 기술을 활용해 유무선 전화 음성회의, 모바일 영상회의, 공동저작 서비스 실시
- \* IP Telephony : 유무선 전화환경을 인터넷 전화환경으로 전환하는 솔루션

〈 참고3 〉 지원과제 선정기준

1. 시장성

- 수요자가 중소·영세 기업이며 월 정액제로 서비스할 경우 가격 하락폭 대비 수요 증가폭이 커 수요자는 저렴하게 SW를 이용할 수 있고 공급자는 매출을 확대할 수 있는 분야

예) 선박용품 공급망 관리 SW서비스 : 국내 대형 해운선사는 자체 공급관리 시스템을 운영 중이나 중소형 해운선사 및 선박용품 공급업체는 초기 시스템 구축비용 부담으로 SW서비스 선호

2. 국책성

- 물류 효율화, 에너지 절약, 지식 서비스 산업 생산성 향상 등 국내 경제·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야

예) 육상 운송정보 SW서비스 : 국내 물류업계는 다단계 하도급으로 수익성 악화, 화물-차량 정보 비효율적 관리로 공차 운행율이 높으나 동 서비스 도입으로 직거래 활성화, 공차운행 절감 가능

3. 효과성

- 시장규모가 크고 정책적으로도 확산이 필요하나 기능 미흡으로 이용이 저조하여 활성화할 필요가 높은 분야

예) 영상회의·공동저작 SW서비스 : 종래 서비스는 모바일 영상 회의 및 공동저작 기능 미흡으로 이용 저

조하나 풀브라우징, 웹 오피스 등 웹 기반 SaaS 기술 적용하여 이용 활성화

〈 참고4 〉 시범 서비스 대상기관

지원과제	대상기관
육상운송정보 관리서비스	태운물류, 충청물류, 미래물류, 청상통운, 드림물류, 영진화물, 구영물류, 에이스물류, 새시대물류, 양지통운, 부창물류, 성운물류, 천일화물, 여천종합물류, 나라물류, 산정물류, 서우물류, 거성특송, 공신물류, 고려물류넷, 동신종합물류, 서울화물, 선일물류넷, 영화물류넷, 우주통운, 대한특수추레라, 효성로지스, 미산통운, 국보운수, 세원고속, 한창씨엔에스, 전국물류 및 전남화물, 콜로지스, 티앤알로지스, 강호물류, 합동물류넷, 하이한미음물류, 명성화물류, 한신통운종합물류, 신영운수, 전국운수, 대한화물, 서리운수, 유한회사범버원물류, 거국운수, 퍼스트물류, 형제화물, 광주복합화물터미널(48개 기관)
지식공유 및 관리 서비스	네무스틱, 나스텍엔지니어링, 다보링크, 더불에프홀딩스, 모비젠, 명성아이에스, 보라테크, 서진중공업, 아이엠아이, 아이티엠정보, 이인네트웍시스템, 양광로지스틱스, 유니첼, 유엔케이, 이루온, 인에이지, 큐브레인, 한국고직원공제회, 한주케미컬, 한창, 헤드라인시스템즈, 씨디네트웍스, 리지시스, 케이지에스테크, 에어프라이, 그론티스, 나눔정보, 나눔기술, 엑스퍼넷, 메이티(30개 기관)
선박용품 공급관리 서비스	창해진교역, 부산마린, 동주코퍼레이션, 천우트렌스, 이엘에스쉬핑, 이스턴마린, 코리아엠에스, 한미해상, 엠티씨, 한국고객선면세, 오리엔트마린, 에스엔케이 인터내셔널, 조은요트, 유티에스, 오션벨, 정호선박, 봉덕무역, 호성해상, 브릿지마린, 대성마린, 거림통상, 동진해급, 대한정밀, 두양테크, CMS마린, 대동사, 엠에스일, 하나서비스, 웅정, 금양상선, 부산항만산업협회(31개 기관)
영상회의 및 공동 저작 서비스	목원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아산캠퍼스, 코오롱 에버레이, 코오롱 프라스타, 대덕이노폴리스 벤처협회, 대전카톨릭청년회, 원테크 놀리지, 넥스콤 글로벌, 코리아리츠, 한국컨텐츠 학회, 네오파, 프롬투 정보통신, 트루원, 솔리드이엔지, 일아섬텔레콤, 인터커뮤니티, 삼성라이프존, 엔씨정보기술, 코리아글로벌미디어그룹, 지노믹트리, 인텔베이스, 플러스넷, 상명중전기, 우리텔, 플래닉스, 대던디자인그룹, 엔아이티, 하우빌드, 예작, 한미코리아, EMT, 해승, 일산엔지니어링, 에스웬컨설팅, 성문정보기술, 무릉전자, 투원정보시스템, 사이버애드, 에네스코, ROTC 경조서비스, 보문피엔에프, 디젠, 보문약국, 대전유성신용협동조합, 디에텍, 지씨에스커뮤니케이션, TNT정보통신, 주주정보통신, 허브넷, 예코월드, 나이스정보통신, 석림건축사무소, ETR환경기술, 노트케이, 석세스티비, 한글과컴퓨터, 기온신용정보, 한국GS인증협회, 환인제약, 어메이징그레이스, 아주약품공업, 중국상해유정밀로과기유한공사(63개 기관)